

대중의 눈에 비친 기자의 윤리의식과 그 동기
-Public Perceptions of Journalists' Ethical Motivations-

Paul S. Voakes

이 글은 AEJMC(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가 발행하는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1997년 봄호에 실린 Paul S. Voakes 교수(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언론학)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미중서부 지역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376명과 일간지 기자 60명에게 기자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전화 서베이 (telephone surveys)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주민들은 직업 규범이나 경쟁 의식에 의해 기자의 직업윤리가 결정된다고 본 반면, 기자 자신은 회사의 정책이나 관련법,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런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기자들은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는 보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높은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취재나 보도의 과정에서 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내부적으로는, 언론계 동업자나 감독관, 회사 동료 그리고 경쟁자들이 비평가로 나서고, 현업 밖엔 매체비평가들이 있으며, 또한 저널리즘 학자들도 분석가로 나선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중요한 반응을 보이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리는 또 다른 집단 즉, 뉴스 수용자들도 존재한다.

기자들의 윤리 문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기자들의 시각에서 이뤄져 왔으며, 대중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연구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 연구는 기자들이 스스로 직업윤리를 바라보는 방식과 일반공중들이 기자들의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중들이 언론 윤리(journalism ethics)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하나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뉴스산업의 현실적 관심거리로서도 중요하다. 언론윤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매체 공신력(media credibility)과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매체공신력은 언론자유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기존 문헌 정리 및 개념적 틀

윤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언론의 보도행위나 보도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은 여론조사의 단골 주제였다. 과연 기자나 언론사의 보도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였는가? 몇몇 언론사들은 때때로 "당신이 편집자(You Be The Editor)"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관심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도 여부와 관련하여 언론사가 힘들게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 되짚어보도록 한다. 그 중 몇몇 독자들은 기자의 견해와 비교할 만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조사방법은 정교하지 못하다. 언론 윤리와 관련하여 점차 관심이 고조되는 부분은 수용자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에 관해서다. 왜 공중들은 기자들의 행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일까? 수용자들은 어떻게 기자의 (행위)동기를 해석하고 설명하는가? 이것이 이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다.

'기자의 행위 동기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겨냥한 몇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는 린드(Lind)에 의해 이뤄졌다.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의 윤리문제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연구하였는데, 확률 표집된 응답자에게 논란이 되는 문제의 긍정·부정 여부를 물은 다음,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그녀는 윤리적 선택(ethical choice) 상황에서 긍정 부정의 판단에 사용되는 열여덟 가지의 분명한 기준(articulated criteria)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다섯 가지 원리(rationale)로 묶었다 : 정보수집(gathering of information, 직업적 가치), 정보묘사(portrayal of information, 직업적 가치), 영향 및 결과(impacts / results,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한 예상), 법적 요인(legal factors), 그리고 개인적 요인(individual factors). 린드가 제시한 '기준'과 '원리'는, 슈메이커(Shoemaker)와 리스(Reese)의 이론을 원용한 이번 연구방법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슈메이커와 리스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가해지는 다양한 영향엔 서열화된 층위(hierarchy of influences)가 존재함을 주장한 학자다.

린드의 이 연구는, 일련의 유사한 결정인자(determinants)들이 기사들의 기자 작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슈메이커와 리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슈메이커와 리스의 모델은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슈메이커와 리스의 모델을 원용한 린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영역의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요인(Individual) - 직업과 구체적인 연관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요인으로, 가치관이나 신념, 성장 환경 그리고 도덕적 추론과정 등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한 원천에서 기인한다.

소집단 요인(Small Group) - 함께 일하는 동료와 같은 비공식적 집단의 영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기자들의 사회화가 편집자와 동료들의 행동 관찰이나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던 브리드(W. Breed)의 초기연구에서 가져왔다.

조직적 요인(Organization) - 조직은 그 본질상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moral autonomy)에 제한을 가한다. 공유된 조직문화 및 조직 구조 자체에 내재된 억압 요소, 경영진이 표방하는 정책적 지시 등이 이 요인에 포함된다.

경쟁 요인(Competition) - 이 개념은 앞서 언급한 조직적 요인과 밀접하지만, 그 초점은 외부에 맞춰져 있다. 여기엔, 수용자의 관심을 끌만한 결정을 내리거나 보도행위에서 경쟁자를 앞서려는 시도를 통해 조직(언론사)의 시장 내에서의 지위(market position)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 등 기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력이 포함된다.

직업적 요인(Occupation) - 이것은 언론계 내부의 규범이나 가치의 상식적 체계를 의미하며, 수많은 변호사나 학자들이 '전문가 윤리(professional ethics)'라고 부르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 요인은 언론조직 내부의 훈련이나 전문조직을 통한 지속적 사회화(ongoing socialization)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 행위 규범이기도 하다.

법적 요인(the Law) - 법적 요인 역시 거의 모든 윤리적 결정에 공식적(판례, 규제조항 또는 법령)이거나 비공식적(법정 규칙에 대한 뚜렷하지 않은 이해, 타인의 병적 지식에 대한 의존) 형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디어 외적 요인(Extramedia) - 뉴스의 대상이나 취재원, 광고주 그리고 일반수용자 등 언론사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비법률적 영향을 가리킨다. 이런 영향은 해당 기자에게 직접적인 형태로 가해지기도 하지만, 기자들이 전기한 집단들의 반응을 미리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린드는 이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영향("Impact/Results")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자와 수용자들이 기자의 윤리적 결정에 가해지는 다양한 영향력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기자들은 윤리적 문제에 있어 수용자들의 의견과 얼마나 밀접히 조율되어 있는가"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 「커뮤니케이션 동질화 모델(the coorientation model of communication)」 및 조사의 특정 단계에 있어서는 「귀인 이론(the attribution theory)」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동질화 모델"은 서로의 의견에 대한 쌍방의 인식을 고찰하면 양자의 관계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다.

첫째, 합의(Agreement) - A 라는 사람의 입장과 B 라는 사람의 입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둘째, 일치(Congruency) - A 의 입장과 그가 생각하는 B 라는 사람의 입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셋째, 정확(Accuracy) - A 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B 의 입장과 B 의 실제 입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동질화 모델은 원래 대인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사용되었다. 개인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적용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언론인과 수용자들이 개인커뮤니케이션과 그리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를 일반화된 타인(generalised others)으로 간주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원래 이 모델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응용되어왔다. 뉴스에 대한 신문 편집자와 독자의 편견 비교연구, PR 전문가와 언론사 간부들의 직업관 비교연구 그리고, 언론 현업인과 수용자들의 뉴스 선호도 비교연구 등이 동질화 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언론인들이 수용자들의 뉴스 기호(tastes)를 예측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라면, 이 연구는 언론인의 윤리적 결정과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의 우열을 평가하는 수용자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의 연구 경향에 비춰보면, 동질화 모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한다. 즉, 언론인과 뉴스수용자가 언론 윤리와 관련된 사건을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인식(cognitions)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용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언론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언론인의 견해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은 무엇인가", "수용자의 견해에 대한 언론인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런 인식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변수(variables) 즉, 합의(agreement)와 일치(congruency), 정확(accuracy)이라는 세 변수를 추출할 수 있다. '합의'는 수용자의 견해가 언론인의 견해에 근접한 경우를 가리키고, '일치'는 수용자의 견해가 수용자 자신이 미루어 짐작하는 언론인의 견해에 근접한 경우를 가리키며, '정확'은 수용자가 미루어 짐작하는 언론인의 견해가 언론인의 실제 견해에 근접한 경우를 가리킨다(언론인이 미뤄 짐작한 수용자의 견해가 수용자의 실제 견해에 근접하는지 여부는 이번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우리는 동질화 모델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네 가지 연구 문제(research questions)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윤리적 딜레마를 내포한 동일한 가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가 주어졌을 때, 기자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 만큼 공중(public)들도 기자들의 결정에 찬성할 것인가, 즉 두 입장사이엔 합의(agreement)가 이뤄질 것인가?

이런 연구문제를 일관되게 지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앳우드(Atwood)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신문기자와 독자 쌍방의 선택을 조사하여 둘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지만, 존스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이다. 마틴과 오키프 그리고 네이먼 역시 '편견'에 대한 신문편집자와 독자의 인식 사이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대중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뉴스 수용자와 언론인의 윤리적 문제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보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 사회화 관련 연구문헌을 보면 언론인들은 여타 공중에 비해 자신의 직업규범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런 충실함은 재판에 계류 중인 당사자의 권리 침해를 무릅쓰고 철저한 뉴스 보도를 하는 데서도 종종 드러난다. 언론인이 가진 몇몇 직업규범이 개인적 문제의 대중적 폭로를 저지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리슨과 스플리컬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뉴스 편집자들은 공직선거후보자가 예전의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채택한 가상 시나리오에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주제(지역 범죄, 재판 과정, 공공 기록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논쟁적 내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상의 언론인의 행위는 일반 공중보다 언론인들이보다 쉽게 수용할 것이다.

2.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공중의 반응 이유는 언론인의 반응 이유와 같을 것인가? 사람들의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위계구조에 관해 과연 합의가 존재할까? 상반된 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위계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정확히 제시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하지만, 두드러짐(salience)이나 시의적절함(pertinence)이 종종 태도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커뮤니케이션 심리학계의 연구결과가 보고된 적은 있다. 경쟁이나 조직적 요인은 미디어 외적인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기 때문에 수용자 집단에 보다 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반면 언론인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인적(individual) 요인은, 직업과 상관없이, 윤리적 상황에 대해 고려할 때 보편적이고 잠재적으로 두드러진 것이므로, 공중들은 개인적 요인에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외적인 요인 역시 두 가지 요인 중 하나엔 반드시 꼽힐 만큼 수용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것이다. 어떤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논쟁적 뉴스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는 미디어 외적 요인(정보원, 취재 대상 및 그 친구나 가족, 광고주 등)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은 무력하여 언론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미디어 외적 요인의 대부분을 공동체 내의 다른 막강한 기관이나 엘리트 집단에게 돌릴 것이다. "가설 2a"는 다음과 같다.

(가설 2a) : 언론인 자신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일반공중의 판단 중, 개인적 요인과 미디어 외적인 요인들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며, 조직적 요인과 경쟁 요인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부분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다양한 영향 요인들의 상이한 결합(combination)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적절한(pertinent) 요소들이란 뉴스편집국에 특유한 것들로서, 직업 규범이나 조직의 정책(또는 사시), 경쟁으로 인한 압력, 그리고 관련 언론법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들이 반드시 다양한 외적 요인들에 압도당하지 않지만, 개인적 요인의 비중을 관련 연구 자체만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불확실성은 미디어 외적 요인의 영향력에도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정보원이나 취재 대상, 수용자 반응 등에 대한 언론인의 민감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가설 2b"는 다음과 같다.

(가설 2b) : 자신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언론인들의 판단 중, 직업적 요인과 경쟁 요인, 조직 요인, 그리고 관련법 등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 2b) : 상기한 네 가지 영향력은 일반공중보다 언론인들에게 두드러지게 작용할 것이다.

3. 언론인에 가해지는 영향력의 위계구조에 대한 수용자의 견해와, 언론인이 자신들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과연 다를까?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에 대해 갖는 인식과 언론인들에게 가해지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사이엔 '일치(congruency)'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귀인이론'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이다. 여기서 귀인 이론이란 어떤 과정(processes)에 대해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설명들로서, 관찰자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행위자의 관찰된 행동으로부터 행위자의 관찰되지 않은 행동 원인을 역추론한다. 초기의 귀인 이론이, 인간의 빠르고 과학적인 질문 능력과 타인의 행동원인을 추론하는 판단력에 큰 신뢰를 둔 반면, 최근의 이론은 보다 강력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여기서 특별히 "근본적 귀인 오차(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와 그 결과로서의 "행위자-관찰자 차이(Actor-Observer Difference)"를 적용하려고 한다.

"근본적 귀인 오차"란 행위 동기를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의 성격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관찰자들은 행위에 가해지는 사회적 역할의 영향력에 굉장히 무감각하다. 그들은 한 상황의 결과를 단순히 행위자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관찰자들의 이러한 단순 해석 경향은 심지어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이 행위자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음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발견된다. 관찰자들은 여전히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행동 동기를 찾는 것이다.

이런 편향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찰된 행위 자체가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관찰된 행위는 그 근처에 놓인 맥락적 요소보다 인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덧붙여, 개인적 요소로의 귀결은 보다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며 그래서 상황적 요소보다 더 요약·분석하기가 쉽다. 언론인의 사유 방법을 연구한 스톡킹(Stocking)과 그로스(Gross)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언론인들이 그들의 일상적 업무 관행으로 자신들의 행동동기를 귀결시키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행위자-관찰자 차이(Actor-Observer Difference)"는, 행위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적 요인에서 자신의 행동 동기를 찾는 반면 관찰자들은 행위자들의 개인적 특성에서 행동 동기를 찾는 경향을

말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관찰자들은 행위 근저에 놓인 상황적 요소보다 행위자의 실제행동을 훨씬 부각시켜 받아들이는 반면,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분석할 때는 종종 상황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흔히 "근본적 귀인 오차"는 대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 개념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s)"에 대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개개의 관찰자들이 한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행동 동기를 찾는 것처럼, 수용자들은 일반화된 직업 관행에서 행위자(언론인 : 역주)의 행동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린 "근본적 귀인 오차"를 통해 언론인들은 주어진 취재 보도 상황을 둘러싼 맥락적 요소에 주목하지 만 수용자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언론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인의 임무야", 이 두 설명으로 상반된 두 가지 귀인 방식은 분명해질 것이다. 전술한 바에 따라, 귀인 오차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소집단이나 조직 그리고 개인적 요인과 같은 상황적 요소의 영향력을 '평가절하' 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언론인의 직업적 특성(또는 관행)이 수용자들에 의해 관찰된 바와 같다면, 언론인 사이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는 변이를 유도하는 상황적 요소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로, 수용자들은 경쟁이 가하는 압력이나 직업 규범을 언론인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으로 인식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런 영향력들이 개인 또는 조직적 변이를 초월하는 단일한 특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인들이 단일한 규범이나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따르는 정도에 따라, 법률적 영향도 수용자의 평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a) : 수용자들은 그들의 동질화 정도에서 낮은 일치와 정확도를 나타낼 것이다. 즉, 수용자들이 스스로의 영향력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언론인에 가해지는 영향력들에 대한 인식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수용자들이 언론인에 가해지는 영향력들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영향력에 대해 갖는 인식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b) : 수용자들은 언론인들에 대한 직업, 경쟁, 그리고 법률적 요인의 영향력이 여타소집단, 조직, 또는 개인적 요소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4. 가상 행동(hypothetical action)에 대한 찬반 결정에 일관되게 작용하는 특정한 영향이 과연 있을까? 주어진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그 변인이 정향적 영향력(directional influence)을 행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업 규범의 영향력을 언급한 수용자의 절반은 언론인의 행위를 인정한 것일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반대한 것일 수 있다. 즉, "주민들에게 자신의 마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의무다"는 식의 직업 규범은 인정을 받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언론은 청소년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식의 직업에 얽매인 추론들은 반대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전 사람들의 찬반 양태를 밝혀보면 왜 언론인들이 특정한 견해를 수용하는지 또는 왜 사람들은 언론인의 특정 행위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부류의 영향력은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만약 윤리적 위험이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법을 의식하였다면, 여기서 법은 행위의 포기를 종용하게 될 것이다. 언론 외적인

영향력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법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띠 것이며,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던 '직업 규범'처럼 보다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미디어 외적인 영향력엔 뉴스대상이나 그들의 가족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며, 뉴스 수용자의 반응도 포함된다. 이런 까닭에 미디어 외적인 영향력은 '부정적' 답변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정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 즉, 수용자들은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젊은이들과 그의 가족들이 처벌받거나 당황해하는 것을 보기 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엔 의례 '긍정적' 답변이 나온다.

경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은 논란이 되는 행위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경쟁에 의한 동기유발은, 어떤 종류의 일에서든지, 행위자를 타인의 요구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이 연구에서 채택한 특정 시나리오에서 소년 범죄자의 이름을 처음 공개한 언론사는 경쟁사에 비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간주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적 영향력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언론인의 직업 규범은 종종 정보전파자(information disseminator)와 사회 감시자(watchdog)라는 언론의 역할을 충족시키는 공격적 보도행위를 조장한다.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 4) : 경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은 가상적결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법적 요인은 부정적 반응으로 연결될 것이다

II .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여론조사 작업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에선, 1993 년 11 월에 북미 중서부 지역 한 마을(County)에 사는 확률 표집된 주민 376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선 주민들에게, "마을을 뒤흔든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한 청소년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사건에 대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심리가 진행이었으며, 소년의 부모는 뉴스 보도시 실명을 거명하지 말아달라고 지방 언론에 호소하였다. 하지만 한 언론이 소년의 이름을 공개하였다." 라는 내용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10 점 척도상에 실명을 공개한 언론 보도행위를 평가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왜 그런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를 자유로이 기술하도록 요청받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그러한 보도행위에 대한 언론인 스스로의 평가는 어떨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밝히도록 요구받았다. 1994 년 1 월, 역시 확률 표집된 60 명의 같은 마을 언론인들에 대한 전화 서베이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응답 자료를 코딩(coding)하기 위해서, 각 응답자들의 답변을 사회적 영향력(개인, 소집단, 혹은 이러저러한 다른 요인들)의 범주로 대입시킬 수 있는 지침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언론은 늘상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죠."와 같은 것은 수용자들이 직업적 요인의 영향을 지목한 전형적인 답변이었다. 미디어 외적인 영향을 언급한 전형적 답변은 "그와 같은 보도는 그 가족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였으며,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예요."는 개인적 영향을 언급한, 그리고 "그들은 신문을 팔기 위해 항상 혈안이죠."는 경쟁 요인을 지적한 전형적 답변이었다.

언론인들의 응답에서, "그것은 위법행위입니다."는 법적 영향을 지적한 것이었으며, "난 뭔가를 보도하기 전에 누군가와 함께 이곳을 조사하고 싶습니다."는 소집단의 영향에 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적 영향에 대한 전형적 답변은 "우리 회사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용의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였다. 이런 방식으로 응답자들의 생각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범주로 코드화되었다. 가령, 응답자의 처음 두 세 가지 응답이 같은 범주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라면 그 응답은 한 범주에만 속하는 것으로 코드화하였다. 코더(coder) 사이의 신뢰도는 전체 핵심요소들간에 스코트의 파이(Scott's pi). 7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결과

가장 기본적인 동질화 수치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설 1"의 예측("논쟁적 내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상의 언론인의 행위는 일반 공중보다 언론인들이 보다 쉽게 수용할 것이다.")은 빛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시나리오상의 실명 보도행위에 대한 언론인의 평균 평점(3.17)과 주민들의 평균 평점(2.95) 사이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시나리오에서 두 비교집단은 '합의(agreement)' 상태를 이루고 있다.

"가설 2"에서는 언론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한 두 집단의 순위 평가가 다를 것이며, 어떤 영향력이 특히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표 2>는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 수치는 응답자들의 자유응답한 횟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첫 번째 열은 "가설 2a"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반공중들은 개인적 요인과 미디어 외적인 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하였음을 보여준다(평균치 .31 과 .33 은 각각 일반공중 응답의 평균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또한, 일반공중들은 "가설 2a"대로 조직적 요인과 경쟁적 요인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조직 및 경쟁요인의 복합 평균(the composite mean)은 .03 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공중들이 법적 요인을 다른 요인들보다 훨씬 많이 언급하였으며, 언론인들의 언급 횟수를 능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2>의 세 번째 열에 나타난 결과는, 언론인들의 윤리적 행위 결정이 조직적 요인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가설 2b"의 예측은 대부분 빛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 중 조직적 요인만이 언론인 응답 평균치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일반 공중들이 법적 요인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과 유사한 추론 양식을 제시한 것인지도 모른다. 즉, 이 두 결과는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규칙에 충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인들이 언급한 조직적 요인의 대부분은 자신이 속한 언론사의 사시와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발견되는 일반공중과 언론인의 차이점은, 일반공중의 경우 언론인의 윤리적 결정을 통제할 공식적인 법률을 언급한 반면, 언론인들은 자신들만의 법일뿐인 비법률적인(하지만 여전히 언론인들을 옥죄고 있는) 사시를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위버(Weaver)와 윌호이트(Wilhoit)의 보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 주는데, 그들은 편집(혹은 보도)국의 분위기를 보면 언론인이 어떤 윤리적 정향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가설 2b"에선 조직적 요인 외에 직업, 법, 그리고 경쟁 요인이 언론인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1〉 소년범죄용의자의 실명 보도에 대한 반응 비교

	주 민	주민들이 예상한 언론인들의 평가	언 론 인
평 균	2.95	4.21	3.17

〈표 2〉 언론인의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 비교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향	주민들의 생각하는 언론인에 가해지는 영향	언론인 스스로 생각하는 영향
개인적 요인	.31	.04	.35
소집단 요인	.00	.02	.00
조직적 요인	.01	.02	.72
경쟁 요인	.00	.29	.12
직업 요인	.25	.37	.22
법적 요인	.65	.23	.33
미디어 외적 요인	.33	.18	.25
기타 요인	.04	.05	응답 없음

이 네 가지 요인의 복합평균은 .35로서 다른 네 가지 요인의 평균 .20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가설 2b"은 조직, 직업, 법, 그리고 경쟁 요인이 일반공중보다 언론인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조사 결과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일반공중의 경우, 이 네 가지 요인의 복합평균은 .23으로 나타난 반면, 언론인의 경우 이와는 유의미한 차이로 할 수 있는 .35였다. 예상했던 차이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될 점은, 예상치도 않았던 일반공중과 언론인 응답 사이의 유사점일 것이다. 소집단과 미디어 외적 요인, 개인적 요인, 그리고 직업적 요인에 대해 언론인과 일반공중들은 대충 비슷한 빈도의 응답을 하였다. 〈표 1〉에선 두 집단 사이의 기대하지 않았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표 2〉에선 두 집단의 추론 방식이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론인과 일반공중은 똑같이 소년 용의자의 이름을 밝힌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였으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도 ("조직"과 "법"이란 두 요인을 제외하면)비슷한 추론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일반공중들 내부의 '일치'나 '정확'은 어느 정도일까? 〈표 1〉에서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낮은 일치도와 정확도를 알 수 있다. 언론인의 자체 평가에 대한 일반공중의 예측은 실제로 이뤄진 언론인의 자체 평가와 일반공중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공중들은 언론인들이 자신들보다는 더 자발적으로 소년 용의자의 이름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시나리오에 대한 언론인들의 반응은 일반공중에 더 가까웠다.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독립 변수와 관련해서, "가설 3a"는 일치도와 정확도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표 2〉의 제 1 열과 제 2 열은 일치도가 아주 낮음을 보여준다. 일반공중들은 언론인들이 '소집단'과 '조직'을 제외한 모든 영향력들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반공중들은 직업(.37)과 경쟁(.29) 그리고 법적 영향력(.23)이 언론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언론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직업 규범 그리고, 신문을 팔거나 시청률을 높이거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다. 역시 "가설 3a"를 지지하는 결과로, 일반공중들은 자신들이 '개인', '법' 그리고 '미디어 외적인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작은 비중은 언론인들은 이들 영향력에 둘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비교점은, 일반공중의 귀인(attributions)과 언론인의 실제 인식 사이의 관계였다. 즉, 일반공중의 동질화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가설 3a"는 정확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표 2>에 나타나듯, 언론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 일반공중의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비중을 두었고, '경쟁 요인'과 직업 규범 등의 '직업 요인'은 일반공중의 예상보다 낮은 비중을 두었다. 하지만, '법'이나 '소집단' 그리고 '미디어 외적인 영향력'에 대한 일반공중의 예측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b"는 '근본적 귀인 오차'를 예측하였다. 즉, 일반공중은 '직업', '경쟁' 그리고 '법적요인'이 '소집단', '조직' 또는 '개인적 요인'보다 강한 영향력을 언론인에게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전술한 세 가지 요인의 복합 평균(.30)과 후술한 세 요인의 평균(.03)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 부분은 확연히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결과가 "가설 3a"를 모든 면에서 지지하진 않았지만, '근본적 귀인 오차'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공중은 조직이나 개인적 요인 같은 상황적 요인이 언론인들에게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부정확성을 보였으며, 직업 규범이나 경쟁과 같은 일반화된 직업적 요인이 언론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잘못된 예상을 한 것이다. 마지막 연구 문제는 '영향력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가설 4"는 응답자가 '미디어 외적 요인'이나 '법적 요인에 비중을 둘수록 '소년 용의자 실명 공개'에 대한 반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표 3>은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s)분석의 결과로서, 종속변인(dependent variable)은 언론인의 가상적 행동에 대한 수용도(acceptability)였다. 일반공중들에 대한 법적 요인의 부정적(negative) 영향은 분명히 드러났다. 법적 요인을 언급한 응답자들은 언론인의 행위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시에 그들은 언론인들 스스로도 법적 요인에 대한 고려 때문에 해당 언론인의 행위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법적 영향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론인들의 판단에 조직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반대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 영향력은 유의미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미디어 외적 요인 역시 일반공중이나 언론인들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요인은 언론인에 대한 여러 영향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유의포수준 $p < .10$)하였는데, 반대보다는 찬성응답을 많이 이끌어냈다. 미디어 외적 요인에 관한 자유응답을 조금 자세히 분석하면, 찬성 응답에 가까운 많은 언급들을 찾을 수 있다. 가령, "그 소년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모든 독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혹은 "현 상황에서 소년의 가족들은 어떤 호의도 기대할 순 없다."라는 등의 응답이 가족이나 소년의 대한 동정어린 응답보다 많았다.

"가설 4"에선 경쟁과 직업 요인이 언론인의 보도 행위를 용인해주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인에게 가해질 영향에 대한 일반공중의 인식에서만 가정했던 대로 결과의 차이가 나왔을 뿐이다. 언론인들은 경쟁심에 몰려 행동을 결정하며 그런 경쟁에서 비롯된 압력은 소년 용의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까지 낼 수 있다고 일반공중들은 느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언론인들은 경쟁으로 인한 압력은 없다고 답변했다.

〈표 3〉 언론인의 윤리적 결정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다 중 회 귀 분 석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향	주민들의 생각하는 언론인에 가해지는 영향	언론인 스스로 생각하는 영향
	회귀 계수	회귀 계수	회귀 계수
인구학적 요인			
나 이	.14	-.14	.08
성 별	.15	-.09	.07
교 육	.07	.07	.27
사회적 영향요인			
개인적 요인	.02	-.11	.06
소집단 요인	-.01	.01	응답 없음
조직적 요인	-.04	.09	-.04
경쟁 요인	응답 없음	.15	.10
직업 요인	-.10	-.02	-.02
법적 요인	-.37	-.28	-.16
미디어 외적 요인	.02	.01	.18
Equation R-square	.19	.19	.13

직업 요인과 관련해서 산출된 계수(coefficients)는 명백히 가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세 가지 유형의 인식 중 어느 한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조직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영향 범주가 내포하는 다양한 관념들로 인해 특정의 한 방향성을 가진 응답이 도출되기 힘들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하지 않았던 한 가지 결과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몇몇 인구학적 독립변인(control variables)들이 회귀분석의 마지막 몇몇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예컨대, 높은 연령의 일반공중들은 가상 시나리오상의 언론인의 행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젊은 일반공중들이었다. 언론인들 중에선,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언론인의 행위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IV. 요약 및 토론

'피드백' 즉, 커뮤니케이터가 수용자의 반응을 전달받는 과정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한계 중에서 연구가 가장 적게 이뤄진 분야이다. 피드백은 계속하여 이어질 메시지의 내용과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피드백은 커뮤니케이션의 영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 윤리'라는 연구분야에서 일어나는 피드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었다. '언론 윤리'는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이해 정도가 특별히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주체(moral agency)의 명백한 개인성에도 불구하고, 윤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윤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원용한 슈메이커-리스의 '사회적 영향력 모델'은, 결국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배려는 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역동적으로 배열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암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 외적인 요인들이 언론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용자 반응에 대한 고려가 미디어 외적인 요인들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성격의 연구를 통해 언론인의 윤리적 동기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언론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수용자의인지 양태에 관한 이해도 함께 축적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행해진 연구는 일반 공중들이 언론인의 윤리의식을 설명하는 방식과, 언론인과 일반 공중들이 동질화 모델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accuracy)'를 보이는지에 관해서만 간단히 다루는데 그쳤다. 현재의 연구는 윤리의 동질화 경향을 보다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그런 연구는 다분히 탐구적(exploratory)인 성격을 띠어 왔다. 단 하나의 가상 사례를 한 마을에 사는 두 집단에 제시하여 얻어낼 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결과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언론인과 일반공중은 몇 가지 반응과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 놀랄만한 '합의 (agreement)'를 보여 주었고, 예상했던 불일치(incongruency)와 부정확(inaccuracy) 현상도 일반공중의 응답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공중들은, 상황적 요인이 아닌 일반화된 직업적 특성이 언론인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으로써 '근본적 귀인오차'의 함정에 빠졌다. 즉, 그들은 언론인의 윤리적 결정이 대부분 법, 경쟁, 그리고 직업적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윤리적 결정이 조직의 정책이나 관련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예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자신들의 개인적 윤리의식에 따라 이뤄진다고 믿는 것 같았다. 일반공중들의 윤리적 결정이 미디어외적인 영향이나 개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밝혀졌지만, 정작 그들의 결정은 법적 요인이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윤리에 관한 인식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란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언론사의 실용적 관심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일반공중의 인식은 언론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계속 입증되어 왔으며, 동시에 언론의 수용자 유지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런 연구결과가, 언론 종사자들은 수용자의 기호를 보다 잘 파악하여 그것을 성공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은 아니다. 보다 더 타당한 목적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언론인들의 윤리 동기가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공중들이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사를 고소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언론사 경영진들은 수용자의 가치와 인식에 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이용하여, 먼저 수용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수용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언론인의 윤리의식에 관한 수용자의 태도를 보다 많이 이해하는 것은 윤리적 사건에 대한 일반공중의 분노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언론 윤리에 관한 수용자와 언론인의 높은 합의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며,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보다 잘 알고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타인의 생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